

배경(세계관) 설정

옛날 환웅이 한반도에 정착한지 얼마 안된 때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에게 와서 “원컨대 모습이 변화하여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며 간절히 빌었다. 이에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받아서 참으며 먹었는데 곰은 21일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이후 곰, 즉 웅녀는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게 되었다. 곰과 달리 뛰쳐나가서 사람이 되지 못한 호랑이는 사람도 호랑이도 아닌 수인의 모습으로 진화 하였다. 그 모습이 부끄러웠던 호랑이는 태백산에서 멀리 도망쳐 나와 지금의 경상도 지역의 지리산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상도 지역은 호랑이 수인 종족이 자리잡아 후에 신라를 건국하고 현재의 조선까지 그 핏줄이 이어지게 된다.

시간이 지나 조선시대, 수인과 인간은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의 조선에서 살아가던 중 나라에 이상한 기운을 가진 생물들이 나라 곳곳에 생겨나고...

세계관 및 캐릭터 설정



직업명 - 착호갑사

포지션 - 탱커

종족 - 인간

사용가능 무기 - 한손검, 방패, 양손검

캐릭터 설정

어린시절 평화롭게 친구들과 놀고있던 때, 마을이 이상한 기운을 감싸고 있는 호랑이의 습격을 받게 된다.

마을을 지키고 있던 착호갑사들은 술기운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호랑이를 힘겹게 쫓아내고 만다. 마을을 지키던 착호갑사가 있었기때문에 사상자는 없었어야 하건만, 게으른 착호갑사들 때문에 사상자는 마을의 절반 이상이 생기고 만다.

그 사상자 중에 주인공의 부모님도 포함되어 절망에 빠지지만, 남은 마을 사람들을 보며 남은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지키리라 하는 결심을 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 주인공은 마을근처의 호랑이들의 씨를 말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성실한 착호갑사가 되고, 왕의 파견 임무를 받게 되어 이상한 기운을 두르고 있는 생물들의 조사 임무를 떠나게 된다.

세계관 및 캐릭터 설정



직업명 - 사수

포지션 - 원거리 딜러

종족 - 인간

사용가능 무기 - 국궁, 조총

캐릭터 설정

고구려의 명사수 주몽의 핏줄을 이은 활 명가에서 태어난 주인공은 어느 날 아버님과 함께 수도 한양 밖으로 사냥을 나서게 된다.

사냥을 하고 해가 저물 무렵 어느 한 마을의 주막에서 머물게 되는데, 수도 한양에 비해서 수도 밖 마을은 가난하고 난폭한 생물들의 습격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결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주인공은 현실에 신물을 느끼게 되고, 장차 본인이 큰 사람이 되어서 현실을 바꾸리라 마음을 먹게 된다.

주인공이 어느정도 자라서 조선의 사수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와중에, 착호갑사와 함께 이상한 기운을 두르고 있다는 생물들의 조사를 떠나게 된다.

세계관 및 캐릭터 설정



직업명 - 도사

포지션 - 마법사

종족 - 인간

사용가능 무기 - 부채

캐릭터 설정

먹을 것이 하나 없고, 경제적으로도 결핍한 가정에서 태어난 주인공은 갓난아이시절 부모에게 연못가에 버려지고 만다.

아이가 버려지는 것을 연못안에서 보고있던 산신령은 아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도사 세계로 데려가게 된다.

도사들 사이에서 유년기를 보낸 주인공은 자연스럽게 도술을 배우게 되고, 인간세상이 궁금했던 주인공은 스승에게 어리광을 부려서 스승과 함께 인간세상에 내려가게 된다. 스승과 함께 인간세상을 구경하고 돌아가려던 와중에 이상한 기운에 잠식 되어버린 신수를 마주하게 된다. 스승은 신수를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제지하려 하지만 자신의 생존과 신수의 정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스승은 주인공을 도사세계로 보내고 동귀어진 하게 된다.

이상한 기운에 정신을 잃은 신수에 의해서 스승을 잃은 주인공은 이상한 기운에 의문과 복수심을 품게 되고 모험을 떠난다.

세계관 및 캐릭터 설정



직업명 - 농부

포지션 - 서포터

종족 - 인간

사용가능 무기 - 괭이, 호미

캐릭터 설정

수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마을,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이 마을은 탐관오리와 게을러진 군인들을 내쫓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경단과 마을 외곽으로 벽을 쌓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주인공은 그런 마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경단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와 다르게 자경단의 내부는 점점 썩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경단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주인공 이지만 자신이 생각하던 자경단이 아니란 것을 느낀 주인공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경단을 탈퇴하고 마을 농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농부의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주인공은 왕의 의뢰를 수행하고 있는 일행을 만나게 되고, 의로운 일에 목말라 있던 주인공은 일행을 도와주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세계관 및 캐릭터 설정



직업명 - 권사

포지션 - 근거리 딜러

종족 - 수인

사용가능 무기 - 너클

캐릭터 설정

어쩌구 저쩌구